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필리핀을 중심으로*

김동엽**

I. 머리말

II. 은퇴이주에 관한 일반적 논의

III. 필리핀 은퇴이주의 현황과 실태

IV. 필리핀 은퇴이주의 현실과 전망

V.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을 필리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은퇴이주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남아 은퇴이주는 정보의 미흡과 일부 상업적 접근으로 인한 과대포장으로 우리사회에 왜곡된 인식을 낳는 측면도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 하에 은퇴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결부되어 동남아 은퇴이주가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은퇴이주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방편이나 자녀들의 유학을 위한 편의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가족 중심적 가치관 등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인구학적 혹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감안하고 고학력의 연금수급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에는 동남아 은퇴이주가 노년기 삶의 한 선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정책과 더불어 지리적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B00029)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더불어 필자의 출고에 대해 세심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근접성, 온화한 열대성 기후, 그리고 경제적 발전격차로 인한 저렴한 생활비 등은 여건을 갖춘 우리나라 은퇴자들에게 은퇴지로서 합리적 선택사항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하겠다.

주제어: 동남아, 필리핀, 한국인 은퇴자, 은퇴이주, 노년층

I. 머리말

우리사회에서 은퇴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과거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볼 여유가 부족했고, 전통적인 가족중심형 생활패턴은 노후설계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등안시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서구화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인구분포에서나 사회적 가치관에 있어서도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 출생 세대)가 60세에 접어들게 되는 2015년경에는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0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3%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4%, 2025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6). 또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도 많은 변화를 낳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1980년에 80%, 1994년에 55.9%, 2000년에는 49%, 그리고 2004년에는 43.5%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Toyota 외 2006, 30; 보건복지부 2005). 이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이 증가함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8.4년 늘어나 2007년 현재 남자의 평균수명이 76.1세 그리고 여성은 82.7세에 달하였으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은퇴 후 20~30여년이라는 장기간의 삶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은퇴이주¹⁾와 같은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은퇴자들은 물론 예비 은퇴자들로 하여금 은퇴 후 삶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생의 노년을 행복하게 꾸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의 적절한 수립은 물론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실버산업과 같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이주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도시에 머물던 도시 직장인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현상에 집중되어 있다(박공주·김양희·박정운 2007;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서규선·변재면 2000;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 2005; 윤순덕·박공주 2006 등). 이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화 되었던 농촌으로의 인구유입과 더불어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성화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최근 은퇴지로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각종 미디어에서 해외 은퇴이주에 대한 소개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상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이주의 대상지로 동남아가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 후 동남아로 이주하려고 하는 추세는 주로 비용대비 효용이라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은퇴 후에 보장 받게 될 제한된 수익으로 보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선택의 하나로 간주된다. 은퇴이주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 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이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Toyota 외 2006).

은퇴이주자들의 유입은 소비력을 갖춘 인구의 유입을 의미하기

1) 은퇴이주에 관한 개념적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은퇴지로서의 적절한 조건, 특히 온화한 기후와 저렴한 생활비 등을 갖춘 국가들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해외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그 잠재적 시장의 방대함 때문이기도 하다. 60세 이상 은퇴자 인구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을 합하여 2006년에 3억 2천6백60만 명에 달하며, 2015년에는 4억 2천5백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Mollman 2007).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은퇴 이주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6년부터 은퇴비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 50명에 불과하던 은퇴비자 수급자가 2001년에는 800명을 기록했고, 2006년까지 총 8,700명(동반 가족제외)에게 은퇴비자가 발급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제2의 홈 프로그램'(My Second Home Program)을 통해 2007년부터 향후 3년간 매년 3,000에서 3,500명의 은퇴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태국에는 공식적인 은퇴비자 프로그램은 없지만 2005년에 1,500건의 비자가 외국인 은퇴자에게 발급되었다. 필리핀은 국가적 우선사업으로 은퇴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2006년까지 은퇴비자 소지자는 5,183명에 이르고 있다(Mollman 2007). 이와 같은 적극적인 유치정책과 우리사회에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동남아의 은퇴이주 현상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동남아현상'을 '은퇴이주'의 사례를 통해 그 근원과 경로 그리고 현상을 살펴보았다. 동남아 은퇴이주의 근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배출과 흡입(push-pull)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 본 글에서 '동남아현상'은 한국에서 경험되고 인식되는 동남아 관련된 일체의 현상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본 개념은 근래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관련 현상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도입되었으며, 차후 보다 세밀한 개념화 작업이 요망된다.

경로는 은퇴지로서 동남아를 선택하게 되는 개별적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현상은 은퇴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은퇴자의 삶과 주변 주민과의 사회·문화적 적응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인식되고 있는 동남아 은퇴이주의 한 실체적 측면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은퇴지로 선택하고 있는 필리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그동안 은퇴나 이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구학적 측면에서 양적연구를 실시한 것과는 달리,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수집된 일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구의 중요성과 목적을 명시하였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개념적 문제들을 정리하였고, 더불어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필리핀 은퇴이주 현황과 함께 동남아현상의 근원에 해당하는 필리핀 은퇴이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제4절에서는 필리핀 은퇴이주의 현실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동남아 은퇴이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하였다. 제5절에서는 동남아 은퇴이주 현상을 정리하고,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I. 은퇴이주에 관한 일반적 논의

은퇴(隱退)라 함은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은퇴라 함은 나이가 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수동적 은퇴자(passive senior)로서 인식되어져 왔다(안옥선 2007, 282). 은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은퇴를 "개인이 전일(full-time)보다 적게 고용되고, 주요 수입은 이전에 전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에 획득한 은퇴연금에 의존하는 상태"로 규정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릴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릴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이승렬·최강식 2007, 88 재인용). 일반적으로 은퇴는 퇴직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남 또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단절적 사건 중심의 의미만을 가지는 반면, 은퇴는 이런 의미 외에도 일에서 물러나서 한가로이 산다는 뜻도 품고 있다(김나연 외 2007, 6).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우선 은퇴자는 자신이 은퇴했다는 자의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은퇴 이후의 노동은 과거처럼 생계의 주요 수단이 아닌 주변적인 일로 간주하며, 생계에 필요한 수입은 주로 연금이나 기타 노후 설비에 의해 비축된 자금으로 조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러(Miller 1965)는 은퇴를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 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 혹은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낙인 등으로 인한 커다란 위기로 보았다. 반면 에슬리(Atchley 1971)는 은퇴를 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고, 인생주기에 있어 오래 전부터 예견해 온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비통해 하거나 부정적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는 은퇴를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의 시기'로 고대하기도 한다(배문조·전귀연 2004, 90 재인용). 은퇴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 의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일치된 관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나연 외(2007, 17)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자신

에게 일어나는 퇴직에 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새기며 현실적인 답답함과 스스로 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침들어하며, 미래는 더욱 두려운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 주는 논리를 배문조·전귀연(2004, 98)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³⁾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직업에 대한 태도', '연령', '가족중심적 사고', '여가의 필요성 인식', '소득', '자아존중감', '성별'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변인과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직장인이 직업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직업으로부터 얻는 위신과 보상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퇴를 상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 중심적 사고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퇴가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상의 두 주요 변인이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은퇴 후 삶의 과정을 '사회참여 변화형', '개인만족 추구형', '현실 안주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나연 외 2007, 24). '사회참여 변화형'은 사회에서 밀려나는 역할상실의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추스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고 역할을 맡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와 다시 만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유형이다. '개인만족 추구형'은 혼란의 과정을 거친 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의 인식, 자신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통해 현재의 삶에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것이

3) 배문조·김나연(2004) 연구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의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녀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사회참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유형이다. '현실 안주형'은 사회의 역할상실로 인한 혼란 상태를 변화시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삶이 지탱되어주기를 바라며, 크게 바라는 희망의 정도가 아주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해외 은퇴이주는 은퇴자들의 적극적인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므로 '사회참여 변화형'이나 '개인만족 추구형'의 은퇴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은퇴이주의 확산은 은퇴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에도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도전과 개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민(移民)이라는 용어대신 이주(移住)를 사용하여 국제이주의 한 유형으로서 '은퇴이주'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동남아 은퇴이주자들이 대부분 국적의 변화를 통한 영구이주의 의미보다는 장기체류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은 주로 노동력의 이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들 중 '배출-흡입(push and pull)이론'은 국제이주가 이주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현존하는 불균형(existing disequilibrium)에 의해 형성되며 결국 이주를 통해 균형이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신고전주의 경제학(the neo-classical economics)은 개인의 이주결정을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며, 복리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주지 이동을 전제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등장한 '이주의 신경제학'(the new economics of migration) 이론은 이주의 결정을 고립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계(household)와 공동체 등의 보다 큰 단위의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인 이주체계법에 따르면 이주 흐름은 국가들을 연결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인구 차원의 국내 상황에 의해 발생하며, 또한 이주흐름 자체에 의한 피드백과 조정이 이주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김용찬 2006, 92-96).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들을 은퇴이주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주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은퇴이주의 사례에

도 적용이 가능하다.

은퇴이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노인인구의 이주현상에 대한 인구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체반과 피셔의 연구(Chevan and Fischer 1979)는 미국의 노인들이 은퇴 후 기후가 따뜻한 주(sunshine states)로 이주하는 현상과 경향을 분석하였고, 은퇴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은퇴수입, 교육정도, 건강상태, 그리고 직업수준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은퇴이주가 여타 이주와 다른 점은 이주지의 '기후', 즉 온난하고 따뜻한 지역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월터스의 연구(Walters 2000)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은퇴 전 직장에서 가졌던 삶과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며, 은퇴가 경제적 능력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생활비용이 드는 곳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은퇴이주와 관련된 선진국의 경향을 살펴보면 근래 노인인구수의 절대적인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건강상태의 개선, 경제적 안정, 정부 보건프로그램의 향상 등으로 과거에 비해 은퇴이주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순덕 외 2005, 141). 노인인구의 이주역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우선 귀농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휴양지나 쾌적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잡한 기존 휴양지를 벗어나 목적지가 분산된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 이주자들은 이동에 대한 심사숙고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선택의 여지도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전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휴양지를 목적지로 택하는 경향이 많고, 일시적 이동이 나이가 들면서 영구이동으로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윤순덕 외 2005, 141-142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해외 은퇴이주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도시 거주자들의 은퇴 후 농촌이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은퇴이주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이주의 주를 형성하는 귀농인구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선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농촌으로 되돌아가는 U턴, 고

향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하는 1턴, 그리고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1턴 등으로 구분된다(서규선·변재면 2000, 139). 이들 유형 중 1턴 유형은 교육 수준이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으며,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농생활에 대해 다른 유형보다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전원생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그룹의 귀농인구가 은퇴 후 해외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잠재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은퇴자들에 대한 국내외적 유치경쟁은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실버산업의 선점과 같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이다. 안옥선(2007)은 필리핀과 태국에서 외국의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소개하였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부머, 단카이세대로 불리는 은퇴자들은 이전의 은퇴세대와는 달리 경제력과 활동력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마케팅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 이주해서 생활하는 사례가 TV, 신문, 책자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왔다.

이상의 은퇴이주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은퇴이주의 개념적 이해와 기존연구들의 경향을 동남아 은퇴이주에 견주어 살펴보았다. 은퇴이주라는 특별한 형태의 인간이동은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남아와 관련된 새로운 현상들 중의 하나이다. 동남아 은퇴이주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부상하게 된 배경적 요인과 이것이 소비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은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동남아 현상'의 실체적 의미와 내용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배경적 요인'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한국과 동남아가 처해있는 정치·경제적 위치와 환경적 요인을 의미하며, 은퇴이주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볼 수 있다. '소비되는 과정'은 은퇴이주의 주체인 은퇴이주자의 개인적 혹은 주변인들의 경험을 의미하며, 특히 새

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을 말한다. '문화적 현상'이란 은퇴이주자 혹은 그 주변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적 경험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III. 필리핀 은퇴이주의 현황과 실태

1) 은퇴이주자 현황과 유형

필리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하는 외국들 중 중국, 일본, 태국,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자국으로 가장 많은 국민을 내보내는 국가이다. 필리핀 관광청 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한 해 동안 전체의 20%가 넘는 653,310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목적은 관광, 사업, 교육 등 다양하며, 특히 관광과 어학연수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필리핀 내 한국교민의 수는 2007년에 86,800명으로 대사관 집계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비자를 연장하면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도 많아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힘들다.

필리핀은퇴청(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에서 발급하는 특별영주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이후 은퇴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의 숫자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필리핀은퇴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비자 신청자 수는 2000년에 79명, 2001년에 138명, 2003년에 152명, 2004년에 219명, 2005년에 372명, 2006년에 1,179명, 2007년 2,620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1일까지 692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은퇴비자 취득자 수가 급감한데는 원화 약세로 인한 예치금 부담과, 필리핀 은퇴비자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

는 수요가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필리핀은퇴청 공식 마케터인 R사의 L차장에 따르면 원화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은퇴비자를 반납하고 달러로 되어 있는 예치금을 상환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⁴⁾ 이는 은퇴비자 취득을 위한 예치금이 단순예치가 아닌 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 국적별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자 수(2008.1.1~2008.11.14)

국적	본인	동반인 ⁰	총계	비율(%)
중국	330	457	787	35.99
한국	269	423	692	31.64
미국	115	30	145	6.63
일본	90	23	113	5.17
대만	59	31	90	4.12
영국	59	16	75	3.43
홍콩	21	21	42	1.92
인도	16	11	27	1.23
호주	20	6	26	1.19
독일	17	6	23	1.05
기타	119	48	167	7.64
총계	1,115	1,072	2,187	100.00

출처: Newsletter of the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2008, 8).

주: 1) 은퇴비자 신청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한 명은 동반인으로 은퇴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반자녀 1명이 추가될 경우에는 15,000달러를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일단 은퇴비자 프로그램에 들어온 자녀는 21세가 넘어도 지속적으로 비자가 유지된다.

필리핀은퇴청 홍보관계자(Jose Nazareth C. Delas Alas)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은퇴비자 신청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자녀들의 유학과 연계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 은퇴이주 신청자들의 연령대도 은퇴비자 신청이 가

4) 2009년 1월 22일, R사(서울) 은퇴이주 세미나 중에서.

능한 최소연령대인 35세부터 50세까지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⁵⁾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수의 동반자를 수반하는 경우는 한국과 중국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 은퇴비자 취득자들이 은퇴 이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말해 준다. 필리핀 현지의 K사 대표인 L씨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약 90%는 실질적인 은퇴인구라고 보기 힘들며, 한국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생계형 이주자들이라고 했다. 나머지 10% 중에서도 약 9% 가량은 여가나 기타 다양한 이유에서 투자와 수익사업에 종사한다고 했다. 순수한 휴식을 위한 은퇴인구는 약 1%정도로 한국에 근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라고 했다.⁶⁾ 반면 선진국의 일반적인 유형을 따르는 일본인의 경우에는 한정된 연금과 생활비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나 노년층의 개호·양호를 위하여 추운 겨울을 피해 필리핀을 찾기도 하고, 필리핀의 자연이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독신으로 살아온 혹은 독신이 된 남성이 은퇴 후 필리핀에서 현지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시미즈 2009).

우리에게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은퇴이주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은퇴비자 취득 건수가 많은 것은 은퇴 이외의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건수가 많은 것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편리한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들은 기러기 가족의 형태로 살거나 현지에서 일정한 형태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대도시의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주 형태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시도하

5) 2009년 1월 27일 필리핀은퇴청(마카티, 필리핀) 방문 인터뷰 중에서.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을 위한 예치금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35세에서 50세까지는 미화 50,000달러를 예치해야 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화 20,000달러만 예치하면 된다.

6) 2009년 1월 28일, 마카티의 K사 방문 인터뷰 중에서.

고 있는 한국인 은퇴촌 건설사업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⁷⁾ 한국인들에게 도시에서 벗어난 은퇴촌보다 오히려 교육이나 투자 여건에 유리한 대도시의 고급콘도가 더 인기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실질적 은퇴이주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연금 수급 은퇴자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시점에는 필리핀으로의 실질적인 은퇴이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20년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대체로 1백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가지고 해외 은퇴이주를 고려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존의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종 연금, 그리고 2006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이나 1994년으로부터 보급된 개인연금 등의 수급자들이 해외 은퇴이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이후 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필리핀은퇴청 공식 마케터 R사가 매주 실시하는 필리핀 은퇴이주 세미나에는 많은 수의 예비은퇴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도 해외 은퇴이주의 잠재성을 말해준다.

<표 2> 우리나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수급자 전망

(단위: 천명, %)

연도	60세 이상인구	퇴직연금 수급자수	60세 이상 인구대비 퇴직연금 수급자 비율	개인연금 수급자수	60세 이상 인구대비 개인연금 수급자 비율
2006	6,489	na	-	66	1.0
2010	7,515	na	-	167	2.2

7) 필리핀에 한국인 개발업자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었던 은퇴촌 건설사업이 대부분 실패하였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다.

연도	60세 이상인구	퇴직연금 수급자수 ⁸⁾	60세 이상 인구대비 퇴직연금 수급자 비율	개인연금 수급자수	60세 이상 인구대비 개인연금 수급자 비율
2015	9,055	na	-	398	4.4
2016	9,476	3	0.0	na	-
2020	11,368	150	1.3	800	7.0
2025	13,596	1,051	7.7	1,251	9.2
2030	15,499	2,547	16.4	1,608	10.4
2035	17,189	3,810	22.2	1,889	11.0
2040	18,072	4,529	25.1	2,015	11.1
2045	18,588	5,050	27.2	2,057	11.1
2050	18,122	5,171	28.5	1,961	10.8

출처: 김수환·김옥순(2007, 283 & 287 재구성)

주: 1) 중위전망: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된다고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규전환율이 초기년도 3.5%에서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7년에 총전환율 약 75%에 도달한 후 고정된다고 가정한다.

현재 필리핀에서 이상적인 은퇴생활을 하는 경우를 소개한 방송 내용은 필리핀으로 은퇴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⁸⁾ 마닐라 인근도시인 파가이파이에 살고 있는 이송태씨 부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조화롭게 사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일본인 시가씨의 경우도 농장을 경영하며 현지 주민들과 신뢰와 친목을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현지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사색과 독서, 그리고 글을 쓰며 노후를 보내는 유형도 소개되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은퇴자를 위한 요양시설도 소개되었는데, 주로 일본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설을 완비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8) KBS-NBN이 공동 제작한 "7000개의 얼굴 필리핀", 2008년 3월 3일 KBS 1TV 방영.

한국인 은퇴자만을 위한 이와 같은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유형의 은퇴생활을 설계하느냐는 개인의 건강과 재정적 능력 그리고 각자의 성향과 취미에 달려 있다.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가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은퇴인구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지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은퇴이주의 배-흡입(push-pull) 요인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연금이민'이라고 부른다. 은퇴자가 지급받는 연금에 비해 높은 세금과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물가가 낮으면서도 생활 여건이 비교적 괜찮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다(조선닷컴 2006/11/09). 이러한 연금세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이고, 이들의 해외이주를 촉진하는 데는 다양한 배출(push)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이들 중 우리정부의 정책과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은 이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6년 정부가 해외 부동산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남아에 진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한 여행사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⁹⁾ 또한 우리사회의 영어에 대한 집착과 이러한 집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많은 부모 혹은 조부모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자녀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국가로 나가려는 경향을 낳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01년에 712명에 불과하던 동남아행 초·중고 유학생의 숫자가 2005년에는 4,011명으로 증가하였다 (Manila Times 2007/03/07, 10).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로의 은퇴이주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적 삶의 현실은 이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이나 여행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동남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

9) 2009년 1월 22일, R사(서울) 은퇴이주 세미나 중에서.

부분의 사람들은 그 곳의 느긋한 생활 패턴과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한다. 하나는 생활리듬의 느긋함에서 오는 답답함과 조급함이 하나이고, 또 다른 측면은 급속한 생활 템포에서 벗어난 평온함과 같은 느낌이다.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물러나는 은퇴의 시점에 이와 같은 평온함의 기억은 은퇴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를 비교한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행복도나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연령층의 행복도나 생활만족도는 전체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나며,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동남아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노년층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삶의 여건이 동남아 국가들보다 열악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한국과 동남아 일부국가의 삶의 만족도 비교(%)

질문 국가	Q1. 전반적으로 행복합니까?				Q2. 생활수준에 만족합니까?			
	전체	연령별			전체	연령별		
		-29	30~39	40+		-29	30~39	40+
한국	51	50	56	49	32	37	32	28
필리핀	75	75	74	76	77	76	79	77
태국	78	75	82	78	74	75	72	74
말레이시아	87	85	90	86	75	62	79	83

출처: Inoguchi et al(2006, 422 & 424 재구성).

필리핀이 우리나라 은퇴자들을 흡입(pull)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우선 지리적 근접성과 은퇴지로서 유리한 기후조건을 들 수 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비행시간으로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는 장시간 항공여행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거리이며,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 간에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필리핀은 이처럼 우리나라와 근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국적인 열대의 자연환경은 특히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을 꺼리는 노년층에게 매력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다.¹⁰⁾

필리핀이 은퇴지로 부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렴한 생활비이다.¹¹⁾ 2006년도에 발표된 생활비 비교연구에 따르면, 세계 144개 도시 중에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는 114위, 태국의 방콕은 127위, 필리핀 마닐라는 141위를 나타냈으며, 서울은 1위인 모스크바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Mollman 2007).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층이 가질 수 있는 은퇴자금 혹은 연금으로 도시에서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 힘들지만, 동일한 비용으로 필리핀에서는 대도시의 안락함과 각종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초기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우리의 연금수입 정도로 일을 하지 않고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 등 우리나라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고급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리핀 정부의 은퇴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없으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은퇴자 유치정책은 우리나라 은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2015년까지 총 1백만 명의 은퇴이주자를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오도네즈(Ernesto M. Ordonez) 필리핀은퇴협회(Philippine Retirement Inc.) 회장이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에는 은퇴비자 신청요건을 대폭 하향조정 하기도 했다(Mollman 2007, 재인용). 예치된

10) 필자가 만난 2008년 말 은퇴예정인 농촌진흥청 한 연구관은 은퇴 후 겨울철 몇 달은 필리핀에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6일, 서울에서)

11) 물론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비의 수준은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어지는 짚에서 논하고 있다.

달리는 콘도미니엄 소유권 구입이나 주택, 토지, 콘도미니엄, 연립주택의 20년 이상 장기임대, 골프나 컨트리클럽 지분 소유권 구입,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법인의 지분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은퇴비자 취득 시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즉 수시 출입국 가능,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출국 확인서 및 재입국 허가서 불필요, 이민국에 매년 해야 하는 외국인등록 면제, 시가 미화 7,000달러 상당 개인물품 반입 시 세금면제,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출국 시 여행세 면제, 특별화업허가(Special Study Permit) 면제, 연금 송금 시 면세 등을 제공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오도네즈에 따르면 만약 필리핀이 계획대로 1백만 명의 은퇴자를 유치한다면 필리핀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이주자 한명 당 가정부, 요리사, 운전사, 간호원, 요양사, 이발사, 미용사 등 최소 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퇴자 한명이 매월 1,000달러를 소비한다면, 매월 10억 달러와 4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또한 국가적 문제인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고급인력의 해외유출(brain drain) 추세를 돌이키는 데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Mollman 2007, 재인용). 이처럼 필리핀 정부는 국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은퇴이주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은퇴비자를 발급하는 필리핀은퇴청을 이민국 산하에 두지 않고 투자청 산하에 둔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IV. 필리핀 은퇴이주의 현실과 전망

1) 은퇴이주의 기대와 현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은퇴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매체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낮은 물가와 인건비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정보와 이주에 대한 결심과 실행이 이루어지는 주요 경로는 해외이주 알선업체나 필리핀에 이미 거주하는 친지 혹은 선교사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필리핀 은퇴이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R사의 L씨에 따르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개인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고려한다고 한다. 물론 그간의 생업을 떠나 남은 생애를 골프나 여행과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보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라도 대도시에서 하숙집이나 식당 등 간단한 사업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은퇴이주 성향은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부동산 알선업체들의 난립과 그로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필리핀에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이주 이전에 생각했던 필리핀 생활비와 실제 현지에서 지출 되는 생활비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필리핀 사회의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대도시 중심의 콘도미니엄이나 빌리지의 단독주택에 정착하게 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¹²⁾ 필리핀에서 주택임대는 주로 월세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한국의 그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¹³⁾ 물론 대도시를 벗어나 위성도시라든가 지방도시의 주택임대 가격은 1/2이나 1/3 정도로 저렴하

12) 필리핀에서 콘도미니엄은 우리나라의 고급 아파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며, 빌리지(village)는 보통 외부와 차단된 지역(subdivision)에 고급주택으로 이루어진 단지를 의미한다.

13) 마닐라 도심지역에 두 개의 침실을 갖춘 약 100~150m² 규모의 콘도는 월 평균 임대료가 250~300만원을 호가하는 정도이고, 이보다 작은 침실 하나의 50~80m²의 경우에도 150~200만원을 상회한다 (필리핀 부동산시세 동향, 2007년 4/4분기 분석 및 2008년 전망,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kor/as/embassy_philippines/economy/market/index.jsp). (환율 1페소=30원 기준으로 환산)

다. 그러나 근래 한국인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 최근 3~4년 사이에 임대료가 100% 상승했다고 현지 K사 L대표는 전한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필리핀 사회의 상류층의 활동영역에서 그들의 생활패턴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패턴은 높은 수준의 생활비 지출을 요구한다. 시내 고급식당의 식사가격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한국 식료품점의 물건들은 우리나라보다 비싸며, 특히 한국인들이 외식을 위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식당의 경우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비싼 식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¹⁴⁾ 현지에서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L목사는 한국의 언론에서 필리핀에 가면 월 200만 원으로 황제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도에 현지 한국인들이 분통을 터뜨린다고 했다. 그러한 보도 때문에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주 후 이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민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대도시의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하던 학원사업을 그만두고 필리핀에 와서 마닐라에서 약 1시간 30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앙헬레스시의 카르멘빌(Carmenvil)에 거주하는 L씨에 따르면, “필리핀에 가면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싸다는 말에 솔깃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말한다. L씨는 필리핀에 이주하여 몸이 불편한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인근 국제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다. L씨가 필리핀에 오게 된 이유는 남편의 건강악화로 경제활동

14) 마닐라(마카티) 중심부에 있는 쇼핑몰 글로리에타(Glorieta)에 입점해 있는 한 한국식당 체인점에서 김치찌개로 한 끼 식사를 할 경우 실제로 9,900원이 들었다 (2008년 2월 11일 필자의 경험). 한국식당으로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마카티 쥬피터(Jupiter)거리의 K 한국식당에서는 돌솥비빔밥으로 식사하는 비용이 10,100원 정도 들었다. (2008년 2월 13일 필자의 경험). (환율 1페소=30원 기준으로 환산)

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많은 사회활동을 하다가 노년에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못할 경우 풀워유지는 물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주변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런 일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 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로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많은 불평을 토로했다. "현지인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높고, 또한 현지인 의사와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저렴한 시설과 높은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진료는 한국에 들어가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든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원인 이외에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인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과 오랜 생활을 함께한 L목사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을 야기한다고 전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남의 일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행동이나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들의 태도 등에서 많은 한국사람들이 오해하고 실망한다. 즉 아무리 친하게 대해 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과연 내편인가 하는 의문이 들도록 행동한다든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보다는 오히려 웃으면서 유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들의 문화인 것 같다"고 슬회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은 현지인과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따라서 교민들하고만 서로 접촉하고 의존하게 된다. 필리핀 생활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값싼 인건비 또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즉 지시한 내용과 수용한 내용이 차이가 나고, 그 결과를 두고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한국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한국말)로 호통을 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필리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아무리 값싼 인건비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가사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필리핀 현지 K사 L대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지적한다. "필리핀은 주로 '서면(書面)문화'이며, 이는 한국의 '구두(口頭)문화'와 차이가 있다. 즉 모든 계약이나 명령 등이 서면에 기재된 것만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현지인들의 태도에서 매정하고 융통성이 없는 면을 발견한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가 '판매자 마켓'(seller's market)으로서 소비자를 왕처럼 생각하는 '소비자 마켓'(buyer's market)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당혹스러운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풍족한 예산으로 일시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를 즐기기 위해 오는 은퇴이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화적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겠지만, 필리핀으로 이주해 오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필리핀으로 이주해 오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는 정착비용이 예상과는 큰 차이가 나며, 양질의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와 문화적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 이주자들에 대해 필리핀 국민들 특히 이들과 이웃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이미 많은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존재가 별로 부각되지 않지만,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가면 여전히 생경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다. 필리핀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인이 대거 유입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부동산 구

매나 임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은퇴이주의 경우 필리핀 내의 건설 경기를 끌어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필리핀 정부는 은퇴시장이 필리핀 부동산과 건설 경기의 약 10%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⁵⁾ 더불어 실버산업과 연관된 각종 영역에서 직업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증가하는 한국인은 필리핀 사회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필리핀 상류층 사람들이 혼잡한 도시환경과 분리하여 조용하고 호젓한 주거생활을 즐기기 위해 만든 고급빌리지에 한국인 세입자들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홈스테이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변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이웃들의 불만을 산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수영장이나 기타 공동 스포츠 시설들을 독점하다시피 함으로써 현지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고 전한다. 따라서 일부 빌리지에서는 한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꺼리거나 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⁶⁾

필리핀에서도 여타의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TV드라마가 주요 방송채널을 통해 자주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문화전파와는 달리 이주는 현지인과 직접적인 문화적 접촉과 전달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은퇴이주를 포함한 한국인 이주자들이 현지 지역사회와 필리핀 사람들에게 미치는 한국적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과의 접촉은 대부분 시장이나 골프장과 같은 상업·레저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것도 한국인들 사이에 형성된 혹은 맞추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접촉에 불과하다. 앙헬레스시에 위치한 약 500가구가 구성된 카르멘빌(Carmenvil) 빌리지의 경우 주택의 과반수 이

15) "7000개의 얼굴 필리핀" 중에서. 필리핀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은퇴이주 홍보용으로 주기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16) 이 이야기는 필리핀 은퇴세미나 참석자들 중 필리핀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소개 되었고, 필자가 필리핀 현지조사 중 K사 L대표와의 인터뷰 가운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이 한국인들에 의해 입주해 있다. 빌리지 내의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을 질문했더니, 그저 '오케이'라는 대답을 했다. 앞집 옆집 모두 한국인 가족이 살고 있지만, 상호간의 대화가 오고간 적이 없다고 했다. 왜 상호 접촉이 없는냐는 질문에는 서로 부끄러워(shy)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필리핀인 이웃의 경우에는 상호 교류가 없는 한국인 가족에 대해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같은 빌리지에 필리핀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노년의 미국인 B씨는 주변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을 "말이 없고(no talk), 바쁘며(busy), 그리고 거만하다(arrogant)"는 말들로 표현했다. 이러한 인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상호간의 접촉이 부재한 가운데 피상적인 모습으로 상상하여 인식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은퇴이주의 평가와 전망

은퇴자와 은퇴이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근거한다면 우리에게 필리핀 은퇴이주는 아직까지 보편화된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물론 이승태씨 부부처럼 의미 있고 보람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인식되고 소비되는 필리핀 은퇴이주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근래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이주와 관련된 배출-흡입 요인이 직접적으로 은퇴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편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배출요인 중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나 자녀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 등이 높은 물가수준이나 낮은 생활 만족도, 그리고 추운겨울과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의 흡입요소 중에서 온화한 기후나 낮은 물가수준보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은퇴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라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편의로서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필리핀 은퇴비자가 순수하게 은퇴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사회의 배출요인을 적절히 흡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다른 방편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은퇴이주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접근이나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이상적인 은퇴이주에 대한 사례들은 우리사회에 이에 대한 소비심리를 높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예비 은퇴 연령층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외 은퇴이주에 대한 관심에서도 볼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은퇴연령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에 속한 세대는 개인의 삶보다는 공동체의 안위를 더욱 생각하는 시기를 살아왔다. 이들이 은퇴를 대하는 태도는 다분히 부정적이며, 인생을 즐긴다는 것에 대해 익숙해 있지 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연령에 따른 퇴직 이후에도 은퇴를 생각하기 보다는 가능한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들 연령층에게 제공하는 직업의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으로서 많은 경우 농촌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은퇴 후의 삶의 과정이 '사회참여 변화형'이나 '개인만족 추구형'보다는 '현실 안주형'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삶의 과정을 우리의 농촌에서 흡수하고 있는 것이며, 농촌이주의 패턴으로 U턴이 보편적인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의 산업화 이전에 태어나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해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낸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인구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

치판의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적은 자녀수, 연금 등과 같은 노년층 인구들의 경제적 여유 등은 은퇴 후 삶의 과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태어나서 도시생활에서 자란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높은 교육수준과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익숙해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은퇴 후 삶의 과정이 이전 세대와는 다를 수 있으며, '현실 안주형'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만족 추구형'이나 '사회참여 변화형'을 추구할 개연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으며, 해외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지로서 우리의 농촌이 이전만큼 강한 흡입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근래 해외 은퇴이주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젊은 시절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 비축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적 사회경험을 필요로 하는 저개발 국가에서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사회참여 변화형'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은퇴이주가 보람되고 성공적인 은퇴 후의 삶으로 인식되고, 또한 이러한 유형의 은퇴이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하려는 저개발국의 태도는 이러한 유형의 은퇴이주 인구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물론 은퇴 후 제한된 수입으로 보다 고급스러운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동남아 국가들의 생활환경이 '개인만족 추구형' 은퇴이주를 보다 보편적인 해외 은퇴이주의 유형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일반적 이론인 균형이론(equilibrium theory)은 은퇴이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필리핀으로의 은퇴이주는 물론 기후와 자연환경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은퇴 후 제한된 수익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혹은 문화적 불균형 상태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

정은 상호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수반한다. 즉 한국인은 필리핀에서 값싼 물가와 저렴한 인건비에 순종적인 생활도우미 등을 기대한다. 반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을 부유한 국가에서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너그러움과 자선적인 행태를 기대한다. 이러한 상호 상충되는 기대가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의 요인들은 은퇴이주자들의 유형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즉 삶의 보람과 여유를 찾고자 하는 은퇴이주자들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빡빡한 예산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주해 온 경우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현지인과의 갈등이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은퇴이주가 주로 대중 매체를 통해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이상적인 노후생활로서만 조명되고, 일부 이주관련 업체들에 의한 과장된 홍보로 인한 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차후 실질적인 해외 은퇴이주 수요자 수가 증가하고 또한 많은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둔 은퇴이주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어 전달될 시점에는 이와 같은 갈등적 요인들도 줄어들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남아 현상'을 필리핀 은퇴이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남아 은퇴이주는 아직까지 동남아 여행이나 동남아 음식, 혹은 국제결혼처럼 우리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이는 물론 인구의 이동이 한국에서 동남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인 노동이주나 결혼이주처럼 우리사회에서 가시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수치로 나타나는 규모와는 달리 실제적 의미에서의 은퇴이주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은퇴이주의 목적으로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은퇴이주의 형식으로 이주하는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은퇴이주와 그렇지 않은 이주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남아 은퇴이주는 정보의 미흡과 일부 상업적 접근으로 인한 과대포장으로 우리사회에 왜곡된 인식을 낳는 측면도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 하에 은퇴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결부되어 동남아 은퇴이주가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은퇴이주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방편이나 자녀들의 유학을 위한 편의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가족 중심적 가치관 등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다.

동남아 은퇴이주가 이미 일부 은퇴연령층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으며, 연금과 같은 경제적 여건과 높은 교육이나 외국생활 경험을 통한 언어적 능력을 갖춘 은퇴자들이 다수 배출되는 멀지 않은 미래에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의 행태를 아가는 우리사회의 변화 흐름을 통해 그동안 독특한 형태로 변질되어 소비되던 은퇴이주가 연금이민과 같은 선진국형 해외 은퇴이주로 변화하고, 그 행태도 봉사와 휴식, 혹은 삶의 여유를 즐긴다는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은퇴이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 노년층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귀농이나 은퇴촌, 혹은 노인복지 문제 등 은퇴지를 국내에 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지조사의 실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실재적으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으며, 그동안 왜곡된 보도와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많은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꺼

리는 점 때문이었다. 은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그들의 생활을 노출하기 꺼리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저조사의 어려움은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은퇴자들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들과 접촉이 많은 이주업체나 주변인들의 간접적인 경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해외 은퇴이주는 보다 많은 학술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은퇴이주가 우리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개인적인 선택의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측면, 노인복지적인 측면, 문화전파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방면의 분과학문에서 은퇴이주에 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 2009년 6월 27일]

[심사완료일 : 2009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 : 2009년 7월 23일]

참고문헌

- 김나연·김성희·정은하. 2007.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국가족복지학』 21: 253-288.
- 김수완·김순옥. 2007.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전망 - 사회적 연금의 수급자수 전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271-295.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6.
- 박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 배문조·전귀연. 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보건복지부.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구 보고서.
- 서규선·변재연.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시미즈 히로무. 2009. "일본인 고령자의 팔리펀 장기체류: 꿈과 환멸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 틈새를 살아가는 사람." 제1차 한국동남아연구소교토대 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2009.06.19-20, 경산대학교) 발표논문 번역본.
- 안옥선. 2007. "동남아 일부 국가의 은퇴자 유치 프로그램 및 은퇴촌 조성사례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14(2): 279-29.
-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윤순덕·박공주. 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12(2): 37-47.
- 이승렬·최강식. 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3(4): 83-103.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2006년 11월 통계청 작성.
<http://www.nso.go.kr/> (검색일: 2009. 03. 15)

- Chevan, Albert, and Lucy Rose Fischer. 1979. "Retirement and Interstate Migration." *Social Forces*, 57(4): 1365-1380.
- Inoguchi, Takashi, Akihiko Tanaka, Shigeto Sonoda, and Timur Dadabaev eds. 2006. *Human Beliefs and Values in Striding Asia*. Tokyo: Takashi Inoguchi.
- Mollman, Steve. 2007. "Low Cost of Living Draws, Retirees to Southeast Asia." *WSJ Real Estate Archives*, <http://www.realestatejournal.com/>. (검색일: 2009. 03. 15)
- Toyota, Mika, Anita Böcker, and Elspeth Guild. 2006. "Pensioners on the move: Social Security and Trans-border Retirement Migration in Asia and Europe." *IIAS Newsletter*, no. 40, Spring 2006.
- Walter, William H. 2000. "Types and Patterns of Later-Life Migration."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2(3): 129-147.

인터넷 검색 자료

- 동아일보. 2006. "동남아 은퇴이민 사전답사가 필요하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4210360> (검색일: 2009. 03. 14).
- 조선일보. 2006. "이민자들 동남아행 열풍, '죽기 살기로 일해 봤자 한국선 집 한 칸도...' 박람회 5만 명 몰려 영어조기유학도 각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9/24/2006092460433.html (검색일: 2009. 03. 14).
- 조선일보. 2008. "'문지마' 은퇴이민, 잘못 결정했다 낭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5/2008070500361.html (검색일: 2009. 03. 14).
- 중앙일보. 2006. "롯데관광, 동남아 실버이민 관심 고조에 따라 My Second Home 답사여행 출시." <http://isplussvc.joins.com/asp/articles.asp?aid=523091> (검색일: 2009. 03. 14).
- 한국일보. "제2인생은 길다, 해외로 은퇴 이주 붐: 필리핀·말레이시아 작년 3600명 선 귀족생활 꿈꾸면 실망, 현지화 필수." <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0806/h2008061002375884510.htm> (검색일: 2009. 03. 14).
- Manila Times. 2007. "Koreans pick RP as Retirement Haven." <http://www.manilatimes.net/> (검색일: 2009. 03. 14).

현지조사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필자는 필리핀 현지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첫 현지조사는 2008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앙헬레스 시에 건설 중인 한국인 은퇴촌, '고향마을'을 방문하였고, 주변 한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격 현지조사는 20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 그리고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마닐라와 앙헬레스 시에서 필리핀 은퇴청, 한국인 업체, 그리고 이주자 및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The Practice and Prospects of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Southeast Asia: The Philippine Case

KIM Dong-Yeob

Lecturer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practice and prospects of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Southeast Asia.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Philippines where the thousands of Koreans have acquired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SRRV) within a few year. As for the fulling factors, the Philippines is located in a short distance with a tropical climate that is preferable for an aged people. The economic gap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allows Korean retirees to feel comfortable to live with the limited budget after their retirement. However, the practice of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the Philippin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hat we imagined. The information about the retirement migration to the Philippines in our society is not based on real facts but delivered by mass media in superficial level, and somehow exaggerated by related business entities. Based on the study, the majority of SRRV holders is using their visas other than retirement purpose, for example, facilitating their children's study abroad or searching for a business opportunity after leaving their job in Korea. Based on the related literature, the root of such practice comes from the traditional Korean value system of selflessness and family centeredness. However, the character of Korean retirees is expected to change rapidly in a few years when the Korean baby boomers begin to retire. The social value system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The coming retirees in Korea are economically capable because of their pension, and socio-culturally fit because of their high education, not to mention their exposure to the foreign countries during their younger ages. Thus, the retirement migration to Southeast Asia has a great potential to emerge as a popular option for the new Korean retirees. In spite of the growing importance, the topic of retirement migration has been a relatively neglected area of research in Korea. So, the following up researches in this topic is urgently needed.

Key Words : Southeast Asia, Philippines, Korean Retiree, Retirement Migration, Aged People.